

[사회]

과격 폭력시위 끝장내자

기업이 오겠나, 취직이 되겠나...

- 국민들 "이젠 지겹다"
- 고립되는 광주·전남
- 공권력 바로서야

지난 23일 아침 전남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시위 상황을 TV로 지켜본 서울거주 회사원 유창(38)씨는 맥이 탁 풀렸다. 광주 임동이 고향인 그는 서울살이 2년 동안 공들인 자신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 같아서 서글퍼 지기까지 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회사 동료들은 시위대가 던지는 돌에 광주시청 유리창이 수백 장 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 씩 했다. “광주가 그러면 그렇지”하는 동료 가 있는가 하면, “저런 도시에 살라고 하면 차라리 자살하고 만다”는 직원도 있었다. “밥이라도 한끼 더 사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광주사람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참다 못한 그는 이날 광주시청에 전화를 걸어 30분이 넘

게 “어떻게든 광주의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 ‘반(反)FTA 폭력시위’를 계기로, 광주의 과격 이미지가 되살아나면서 광주·전남이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출신 인재들의 취업을 막고, 모처럼 광주·전남에 투자하려는 기업인들의 발걸음이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유씨 외에도 고향에 전화를 걸어 비슷한 격정을 털어놓은 출향

‘과격 이미지’에 취업·투자 유치 등 불이익

출향인들 “손가락질 안받게 해달라” 하소연

인사들이 많았다. 김민석(45·장흥군 대덕읍)씨는 “서울에 사는 동생들이 왜 또 그런 폭력시위를 해서 ‘전라도 사람들 강패’라는 소리를 듣게 하느냐고 야단을 쳐서 할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과격 이미지’는 특히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인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는 최근 2년간 ‘콜센터의 메카’가 됐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도권 콜센터의 이전이 무드러져 ‘콜센터 5천석 시대’를 열었다. 일자리가 5천 개나 늘

었다는 얘기가. 콜센터를 옮긴 기업들이 ▲광주지역 인재들이 우수하고 ▲수도권에 비해 이직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는 하지만 이번 폭력시위로 이런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고 걱정이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과격 이미지=강성 노조’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번 폭력사태를 보면서 광주는 노동운동이 거센 곳이라는 오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 들어 광주에선 파업 등 쟁의행위가 5건뿐이었다. 반면 울산은 11건으로 배 이상 많았다.

이병화 광주시정무부시장은 “광주는 데모 많이 하는 곳이라는 인상이 짙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태까지 빚었다”며 “그 동안 쌓아왔던 ‘평화의 도시’ ‘문화수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란 이미지가 흔들릴까 두렵다”고 말했다. 오재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은 “폭력시위는 우리의 후손에게도 좋지 못한 짐을 남기게 된다”며 “지역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대학연구비 52% 수도권 집중

전남대 813억원...서울대의 3분의 1 수준

국내 4년제 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비가 5년 새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체 학술연구비의 절반 가량이 상위 10개 대학과 서울·경기도 대학에 몰려 상위권 및 수도권 대학의 독식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16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비는 총 2조3천754억원으로 전년도 2조821억원(203개교)에 비해 14% 증가했다. 5년 전인 2000년(193개교, 총 1조1천569억원)에 비해서는 연구비 지원규모가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천4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 1천229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1천829억원, 한양대 1천억원, 성균관대 867억원, 고려대 866억원, 전남대 813억원, 포항공대 771억원, 경북대

589억원, 인하대 574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대는 지난 2004년 15위에서 2005년 7위로 8단계 뛰어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대학이 1조775억원(45.3%), 대전 1천888억원(7.95%), 경기 1천675억원(7.05%), 경북 1천461억원(6.15%), 부산 1천288억원(5.42%), 광주 1천207억원(5.08%) 등 전체의 52%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별 교수 1인당 연구비는 광주과학기술원(4억9000만원), 포항공대(3억4천300만원), 한국정보통신대(3억700만원), KAIST(2억7천만원), 한국산업기술대(2억5천만원), 서울대(1억3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학문별 연구비 상위 대학은 인문학의 경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사회과학은 서울대-성균관대-전남대, 자연과학은 서울대-KAIST-포항공대, 공학은 서울대-KAIST-한양대, 의학은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의 순이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과학교사 지질 탐사

전남도내 중등 과학교사 40여 명이 24~26일 제주지역에서 생태 및 지질 조사 활동을 벌였다.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연수에서는 제주도 화산암과 서귀포시 신생대 제3기층을 집중 탐사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주 동부교육장 공모

내달 5일 임용 추천

광주교육청은 안순일 교육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동부교육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27일 공고했다. 자격은 교장경력이 있고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이상이며 정년 잔여 1년 이상인 자로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오는 12월4일 하룻동안 응모 접수

를 하며 12월5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면접심사를 벌인다.

시교육청은 심사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임용제청(추천)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서부교육장의 경우 운영원형 교육장의 징계가 끝나는 12월 5일 이후 공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교육장은 ‘국감장 욕설’로 지난 6일 징치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시청사 유리창 파손

광주시, 3개단체 고발

광주시는 27일 “한·미FTA저지 광주·전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새로운 사회를 여는 광주·전남희망연대” 등 3개 단체가 폭력시위를 벌여 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는 고발장에서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한 점을 들어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광주시청 앞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 ‘새로운 사회를 여는 광주·전남희망연대’ 공동대표 허 모(54) 씨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내일 또 反FTA 집회 ‘긴장’

광주·전남 민노총·전농 “강행”...경찰 “불허”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희성)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및 한미FTA 저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2천여 명이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광주시 북구 대촌동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총파업 승리 3차 결의대회’를 갖고, 동구 호남동 광주지방노동청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김덕중·이하 농민회)도 이날 오후 1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FTA 저지 제 2

차 시·도민 총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회 집회에는 광주지방노동청까지 행진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일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지난 22일 폭력으로 얼룩진 ‘광주시청 앞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한 점을 들어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광주시청 앞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 ‘새로운 사회를 여는 광주·전남희망연대’ 공동대표 허 모(54) 씨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뽕을 스치는 찬바람 11월 28일 (음 10월 8일) <전국날씨>

주	구름맑음	6~12℃
목	구름맑음	7~12℃
금	구름맑음	9~13℃
토	구름맑음	7~13℃
일	구름맑음	4~13℃
월	구름맑음	4~13℃
화	구름맑음	4~13℃
수	구름맑음	5~13℃
목	구름맑음	4~12℃
금	구름맑음	5~12℃
토	구름맑음	5~12℃
일	구름맑음	4~12℃
월	구름맑음	5~11℃

서울날씨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뒷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3.0m
남해날씨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2.5m
뒷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 07:06 썰물 < 00:27
19:56 썰물 < 12:27
여수 밀물 < 02:11 썰물 < 08:07
14:58 썰물 < 21:38

▲해돋이 07:19 ▲해질 17:21 ▲달돋이 13:00 ▲달질 ---:--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9(수)	30(목)	12/1(금)	2(토)	3(일)	4(월)
날씨						
최저/최고	3/10	1/11	1/9	0/8	-2/7	-2/8

‘하늘바람뽕 에너지전’ 13개국 66개사 참여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로

418억원 수출상담

‘하늘바람뽕 에너지전’이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광주시는 27일 “지난 23일부터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6하늘바람뽕 에너지전’에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고, 418억원 상당의 수출상담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전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사상 최대규모인 독일·미국 등 13개국 66개사가 참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실수

요자인 김리사·건축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했고, 일반 관람객 3만5천여명도 다녀갔다. 노르웨이 신재생에너지사인 REC그룹 등 65개사의 해외 바이어도 참가해 4천500만달러(418억원)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참가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홍보·판매·전시 지원 등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 최현주 광주시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솔라시티 광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남양주~청평~현리 금호고속, 30일부터 운행

금호고속(대표이사 김성산)은 오는 30일부터 광주~남양주~청평~현리 노선을 신규 운행한다. 광주에서 출발해 남양주(도농·금곡·평내·마석)와 가평군의 청평과 현리 구간을 운행하는 이번 신규 노

선은 1일 1회 왕복운행한다. 각 구간별 요금은 도농 1만7천300원, 금곡 1만7천900원, 평내 1만8천100원, 마석 1만8천710원이며, 청평과 현리는 각 2만300원, 2만1천600원이다. 운행시간은 광주발 오전 8시40분, 현리발 오후 3시이며, 소요시간은 5시간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 내용	개강
주책관리사	최종 마무리 특강 (1차 과목)	11월 1일 (월~금 19:00~22:30)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동	11월 6일 (월~금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11월 6일 (월~금 19:00~21:00)
사무자동화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담후 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후원 상담 ▶ 후원수강신청서작성 ▶ 후원기관에 제출 ▶ 수강

■ 도농지역번호: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65, 777
■ 전남고양: 3, 11, 27, 38, 55, 111, 118
■ 마늘의 거미줄: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2-1088

공무원 쉬운것!

www.mugosi.co.kr

2007년 4-6월 국가직 시험 실시예정

- 교정공무원: 관: 200명, 특: 200명, 보: 1000명, 외: 1000명, 합: 2500명
- 사회복지직: 관: 200명, 특: 200명, 보: 1000명, 외: 1000명, 합: 2500명
- 소방공무원: 관: 200명, 특: 200명, 보: 1000명, 외: 1000명, 합: 2500명
- 보훈관할직: 관: 200명, 특: 200명, 보: 1000명, 외: 1000명, 합: 2500명
- 세무공무원: 관: 200명, 특: 200명, 보: 1000명, 외: 1000명, 합: 2500명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우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공무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출연기관별,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기술직

서울시 지방직 면접 무료특강

공무원 무료 합격설명회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12월 1일 (월/목수반 매월 첫날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

고유가 시대의 희소식!!

초절전형, 고효율 오일식·전기식 웰빙 난로

대한민국대표 원적외선웰빙히터

화레이 35~75%의 난방 절약 효과

국내유일 정부조달청 납품

난방비 걱정 NO!!
그을음, 냄새 NO NO!!

따뜻한 겨울 쾌적한 설비공기 화레이가 책임집니다

각지역대리점및특약점 영업사원(아르바이트) 모집중

10~20평형 30~50평형 50~70평형

설치 장소 일반상가, 사무실, 식당, 역사, 공장, 교회, 상담, 학교, 강당, 유치원, 학원, 정비공장, 경비초소,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병원, 은행, 터미널, 가정집

화레이 T.062-431-4312 062-431-4314

광주(전남)총판

- 광주 010-9468-5434
- 동 구 010-5858-4466
- 서 구 010-5672-2589
- 남 구 010-7713-5236
- 북 구 010-3666-1558
- 남원 010-8285-8265
- 여수 011-601-2510